**Question 4 분석결과**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위 그래프는 2023년 3월 교통카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된 출근시간(오전 7시~오전 9시)의 지하철 최대 승차역, 최대 하차역, 최대 승∙하차역 30개의 역에 대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승∙하차객 수의 단위가 10만 단위를 넘어가고, 표시해야 하는 막대 그래프의 개수가 많으므로,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각 그래프의 y축 값을 만 명 단위로 나누어 두 자리 정수로 단순화한 후 다시 표기하였다 (10,000으로 각 y축의 값을 나눌 때 정수가 나머지 없이 완벽히 나누어 지지 않아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정렬 순서는 이미 정렬 된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소스 코드가 구성되어 있기에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 어디일까?’에 대한 해당 분석에서 데이터 변화로 인한 분석 결과 변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각화된 위 막대 그래프를 하나씩 살펴보며 분석해보자. 우선 첫째로, 출근 시간 최대 승차역이다. 신림역이 2023년 3월 승차 인원만 50만명에 근접하며 승차 인원이 4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비해 10만명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신림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 경전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다음으로, 출근 시간 최대 하차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이 하차 인원이 80만명 가까이 되며 최대 하차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마지막으로, 출근 시간 최대 승∙하차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서울역이 승∙하차 총합 인원 80만명을 넘어서며 여의도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서울역에 비해 시각적으로 소폭 많은 승∙하차 총합 인원을 보여주며 출근 시간 최대 하차역에 이어 출근 시간 최대 승∙하차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위 분석 결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출근시간(오전 7시~오전 9시)의 지하철 최대 승차역, 최대 하차역, 최대 승∙하차역은 공통적으로 환승역이라는 점이다.